국회, 김이수 인준안 2표차로 부결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반 각 145, 기권 1 무효 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인사청문회 95일만인 11일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 관련 자료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 채택이 불발된 이후 과거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의 부결로 183일째를 맞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여야, 박성진 '뉴라이트·창조과학' 맹폭

이찬열 "촛불정국 역행" 이훈 "비판 없어"
정유섭 "임명 힘들다"… 박성진 "사퇴 안해"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1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뉴라이트 역사관·창조과학회 활동에 대한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다른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엄호하는데 주력했던 여당 소속 청문위원들도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증은 청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국민도 한다고 했다"며 "국민 54.1%가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극우 성향' 변희재씨와 '뉴라이트 대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포항공대 정기 세미나에 초청한 것을 문제 삼아 "촛불정국에 반하는 행동을 한 후보자를 초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의심받을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3년전 한분, 1년전 한분 그 두분 다 모두 딱 한번씩 밖에 못 봤다"며 "그분들 초청 가지고 저의 이념, 역할 평가는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가 2014년 변씨를 포항공대 정기세미나에 초청한 것을 지적하며 "학생을 제대로 길러내야할 분이 자기검열 책임에 대해 비판적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연결한 부분은 맞다. 그부분 책임지고 이런 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학교 창업교육센터장이 모든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맞섰다.

장병완 위원장은 "(박 후보자가) 전체 살아온 과정에서 한두가지 갖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한두가지 잘못한게 있는데 장관으로서 일 잘할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는거냐. 아예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변씨와 이 교수를 각각 한 번 만났다"며 "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다"고 항변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한 이유와 창조과학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박 후보자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교수가 경제학자로서 역사책도 쓰고 해서 초청했다"며 "세미나를 만들었을 때 한 교수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참여 여부를 물은 뒤 "작년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 시기조차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장관 자리를 맡기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과도한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는 박 후보자의 칼럼도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산학 연구 활동을 강조하면서 "집회에 나가야만 애국자, 아니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 등을 물은 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철학이 같으면 코드가 같으면 그 사람이 과거 친일 후손이든 다 임명한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임명 안한다. 후보자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명되기 힘들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 받은 뒤 "2006년 이후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데 이분에 대해 가볍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인정했으니 이부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5대 인사원칙 중 언론에 난 것만 해도 3가지가 위배돼 있다"며 자진사퇴 여부를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위법을 한 부분은 다운계약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세금 탈루는 인정했다. 단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의원들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수정안 11일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표결에 부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11일 AFP 통신은 미국 대표부가 대북제재 결의 수정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수정된 결의안은 11일 오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수정된 결의안은 초안에 비해 제재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그러나 원유 및 정제유 등 석유제품들에 대한 금수를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서는 원유,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전면 금수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전면 금수인지, 아니면 일부 제한조치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는 초안 그대로 들어갔다.

통신은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수정안에서는 김정은 자산 동결 조치가 삭제됐고,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제재가 초안보다 완화됐으며, 북한 선박의 조사시 군사력 사용 허용 부분도 완화된 것으로 전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만나 북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접견해 북핵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반 전 총장을 접견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의 만남의 자리는 다음주 미국 뉴욕 순방 기간 중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참석에 대한 여러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은 문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유엔 경험이 풍부한 반 전 총장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높이는 데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 총회 참석 예정인만큼 한반도 문제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등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엔 사무총장 재직 경험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뉴시스

김성태 "특수학교, 양천주민 반대로 강서에"
서울시교육청 "설립 추진한 사실이 없다"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 터가 특수학교 부지로 낙점된 건 목동 주민들의 반대로 양천구 특수학교설립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서울시교육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특수학교가 강서구에는 한 개가 있는데 인근 양천구엔 없어 시교육청이 양천구 목동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숱한 노력을 했다"며 "목동아파트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반대해 성사를 못 시키자 대안지가 이 자리(옛 공진초 터)가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천구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거나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시교육청은 "강서지역의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수학교(서진학교)는 최초 설립계획 수립 시기인 2013년 11월부터 공진초 이적지를 학교설립예정지로 선정해 추진했다"며 "그 이전인 2010~2012년 강서구 또는 양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